

# 미래의 농업이 다양하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다양한 생태 농법들



강창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영팀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1960, 70년대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배고픔을 떨치려는 우리 모두의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을 이루려는 국가적인 바람은 '새마을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른 아침 동네 방송을 통해서, 길거리를 지나는 관공서의 차량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부터 새마을 노래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학교 운동회에서, 공공행시장의 개회식에 앞서, 아니 방방곡곡에서 새마을 노래요, 운동이었다. 특히나 식량증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대단하였다. 적어도 쌀의 자급은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농업 내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축적되었다. 어떻게든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화학비료와 대량의 농약살포가 우리와 자연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집약적이면서 화학적, 경탈적인 농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람건강과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농업은 멀어져 갔던 것이다.

농약을 살포하다 병원에 실려 간 이야기, 농약중독으로 신음하는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지상보도에서 접할 수 있었다.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해 농산물의 안전성에 강한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대두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논두렁을 베고 노래하던 개구리들의 합창도,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늘거리며 노닐던 나비들도, 노을을 벗삼아 군무하던 잠자리도, 가을걷이를 같이 하던 메뚜기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겨우내 들판을 수놓던 가을 철새들의 죽음만이 스산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농산물 이외의 생태계는 거의 모두 파괴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에 과거 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미래의 농업이 다양하다  
다양한 생태 농법들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아졌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기존의 집약적, 화학적, 경탈적인 농법이 환영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증산위주 농법에 대한 반성과 안전성 위주로의 소비자 수요 변환을 고려한 대응이 조금씩 우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가능한 한 사람과 가축, 자연환경에 위해가 덜 가는 농법과 그 농법으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비록 역사는 일천하지만 일부 선각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적적인 농법변화가 움트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게 되는 친환경농업, 농법이 대두된 간단한 배경이다.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 태평농법, 게르마늄농법, 한방농법, 키토산농법 등이 바로 과거 농법으로부터의 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새롭게 등장한 친환경농법들이다. 친환경농법의 가장 중요한 지향 핵심은 화학비료로부터의 해방과 각종 화학농약의 사용금지이다. 유기농업으로 가는 것이다. 농법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거에 우리 농업 모두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되고 있는 어느 농법도 유기농업이라는 최종 지향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농법이 가지는 어려움도 있다. 상대적 고비용과 추가 노동투입 등이다. 왜냐하면 옛날식으로 자연의 일부로 농업을 꾸려나가기야 하기 때문이다.

•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서 오리농법을 견학하고 있는 아이들.  
(사진제공 홍성환경농업교육관)



### ( 친환경농법 )

쌀 중심의 농법과 그 외의 것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태평농법 등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외 게르마늄농법, 한방농법, 키토산농법, 목초액(활성탄)농법 등은 쌀농사와 밭농사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후자의 경우 일부 투입물을 추가 혹은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농법의 전환이냐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 ( 오리농법 )

쌀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제조와 충구제 작업을 오리가 하는 것이다. 사람과 오리가 쌀농사를 함께 짓는 것이다. 모를 낸 후 뿌리가 활착하면 약 2주 정도 성장한 오리를 논 10평에 1마리 정도 넣는다. 요즘은 마리수를 보다 적게 할 정도로 기술축적이 되어 있다. 문제는 야행성 너구리나 고양이로부터 오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 ( 쌀겨농법 )

쌀겨농법 역시 제조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하려는 하나의 친환경농법이다. 논에 쌀겨를 뿌려서 햇빛차단을 통한 제조효과와 그리고 그 자체 비료효과를 얻는 농법이다. 그러나 이 농법에서는 평당 1킬로그램 이상의 쌀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쌀겨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논 10아르에서 나올 수 있는 쌀겨의 양은 50킬로그램 남짓이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쌀겨를 뿌리는 횟수와 시기를 조정하여 효과를 높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쌀겨확보는 이 농법확대의 강한 제약조건이다.

( 우렁이농법 )

우렁이를 이용한 제초가 중심이 되는 우렁이농법도 쌀농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역과 경영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새끼 우렁이를 10아르 당 약 3킬로그램 이상 살포한다. 우렁이가 잡초를 먹고 자란다는 점에 착안한 농법이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는 우렁이가 우리 토착종이 아니고, 남부 지역에서 월동을 한다는 보고 등으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자칫 황소개구리 문제를 겪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태평농법 )

그야말로 태평하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 벼를 수확할 때 나오는 벼짚을 그대로 포장에 되돌리고 무경운 직파를 하는 것이 태평농법의 핵심이다. 농토에 깔린 벼짚은 잡초발아 억제와 비료효과를 준다. 따뜻하게 하는 보온효과도 있어 벼의 생육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 농법 역시 지역의 특성상 모두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직파 법씨의 발아시기 차이로 인한 불균등 생육 등도 하나의 문제이다.

•

제초와 시비방법을 개선하는 위 4가지 농법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제초와 시비부분 작업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농법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게르마늄농법, 한방농법, 키토산농법, 목초액(활성탄)농법 등은 하나의 물질을 농산물의 생육과정에 대체, 혹은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단순한 투입물의 대체를 농법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미는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물의 생육과정에서 작물의 건강상태를 최고조로 하여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내도록 한다는 점이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여기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물질을 살포한다. 따라서 벼든 벼 이외의 밭작물 이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목초액을 이용한 병해충의 방제도, 아울러 토양개량도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자재들이 농업에 도입, 사용되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농촌의 현장에서는 선지자적인 농사꾼들에 의해 위와 같은 다양한 모습의 친환경농법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농법의 도입과 실천은 바로 농민들에 의해 이뤄져 왔다. 자신의 포장을 이용하여 시험수준의 재배도 기꺼이 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들을 농촌에 불러들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을 같이 하기도 한다. 많은 친환경 단체들이 출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도 활발하다. 개구리 노랫소리도 힘차고, 메뚜기 잡는 재미도 쏠쏠하다.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해 약간 값이 비싼 농산물도 잘 팔리고 있다. 미래 우리 농산물 소비자인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농촌 현장중심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낫설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농법의 구체적인 체계화는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선도농민들의 경험이 중요한 기술적 정보가 되고 있다. 수많은 친환경자재, 특히 미생물제재들은 자연적 조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른데 그러한 미세한 변화까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농민들의 체험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체계를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도와 친환경적인 농법의 확장 없이는 우리 농업의 위상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중심에 친환경농업과 농법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농법별 벼 재배현황 (단위\_호, ha)

구분		2000	2001	2002
오리농법	농기수	1848	2,300	4,293
	면적	1156	1,518	3,103
키토산농법	농기수		2,172	3,779
	면적		800	2,925
우렁이농법	농기수	307	714	2,701
	면적	179	443	1,859
쌀겨농법	농기수		94	1,353
	면적		54	831
게르마늄	농기수			1,106
	면적			679
활성탄	농기수			750
	면적			444
맥반석	농기수			367
	면적			227
미생물농법	농기수			221
	면적			135
태평농법	농기수			11
	면적			15
기타	농기수	1,458	2,653	4,354
	면적	836	1,967	4,717
계	농기수	3,613	7,933	18,935
	면적	2,171	4,782	14,935

- 2002년 수치는 12월기준 행정기관(시·도) 보충 조사한 결과임.
- 농법별 재배농가의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지 않은 농가도 있음.
- 자료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내부자료

한마디도 우리의 농사꾼들이 아무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농산  
품에 비해 우리도 오로지 우리의 사막지대인 만의 나라를 살리기가  
과연 가능한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의 일이 우리의  
다행과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살리  
라야 한다는 일만은 분명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가 독립적인 존재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한 먹거리가 필요하다. 생물학적으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점점 내 식구들이 먹을 먹거리가 남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현재 그 범위와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점차 우리의 식탁차림을 외국 농사꾼들에게 위탁해 가고 있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식탁이 차려지고 횡수에 제한이 와도 할 말이 없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격이 싼 외국 농산물을 사먹겠다는 국민도 적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 농산물을 사달라 하기도 어렵다. 사실 우리 농민들도 조금 비싸다는, 농민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것으로 식탁을 차려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많다.

FTA와 DDA협상의 전개, 세계화의 상징인 WTO체제의 강화라는 풍랑을 제치고 우리 농업이 우뚝 서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값이 싼 외국 농산물을 우리 것보다 선호한다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앞날은 밝지 않다.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내어도 외국 그것에 비해 값이 싸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면 그만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농사꾼들이 아무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 내어도 국민들이 사먹지 않으면 나라를 살리는 농업과 농법은 없다. 그 결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먹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독립도 나라의 자주성도 잃어버릴 수 있다.

## ( 추천도서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 김종철·이반 옮김 | 녹색평론사 | 212쪽 | 값 7,000원  
• 경제성장은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 오히려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소농 - 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쓰노 유킨도 지음 | 성삼경 옮김 | 녹색평론사 | 212쪽 | 값 7,000원  
• 산업화를 비판하는 책은 지구생태의 미래를 생각할 소농이 가장 땅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노르베리-호지 지음 | 김종철·김태언 옮김 | 녹색평론사 | 202쪽 | 값 8,000원  
• 물질만이 부각되는 시대 문명과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의미를 더불어 전하는 책.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전국귀농운동본부 엮음 | 두레 | 400쪽 | 값 10,000원  
• 귀농의 의미와 필요성을 말하는 책. 농지와 주택마련 방법, 자립적인 농가살림을 위한 지침 등을 소개한다.



우리의 귀와 입에 익숙한, 앞에서 설명한 농법이 이 나라를 살리는 농법이 아니라면 과연 이 나라를 살리는 농법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과 농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는 어떠한 농법의 의미도 작아진다.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적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는, 그 깨우침에 의해 우리 농업을 사랑하지 않는 한 천하의 어떤 농법도 소용이 없다. 우리의 먹거리를 남에게 맡겼을 때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의 농산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떠한 농법도 나라살림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농민과 국민, 정부의 합의된 마음 속에서만 이 나라를 살리는 농법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농법이다”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고 여긴다. 그런 다음 오리니, 우렁이니 하는 농법이 있는 것이다. **한**